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 더 확장해야죠”

본보 2024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총동창회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서 배식 봉사...오늘도 진행 어르신 130여명 “맛있는 식사에 든든...마음도 따뜻”

“보여주는 봉사가 아닌 공감하고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봉사로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16일 오전 11시께 광주 남구 서동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 내 ‘사랑의 식당’은 지역 어르신들과 노란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로 북적였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이들은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 김경운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 김장관·석성심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 부회장 및 원우들로, 관내 어르신 13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를 했다.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는 17일 한 차례 더 배식봉사를 할 예정이다.

식사에 앞서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 소속 자원봉사자가 내부에 갖춰진 노래방기기로 심수봉의 ‘소양강 처녀’ 반주를 틀며 노래를 부르자 어르신들은 박자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불렀다.

같은 시간 주방에서는 10여명이 음식 준비로 분주했다.

배식 전 김장관 본보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 부회장은 “어르신 여러

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이어 주방에서 김치 등 반찬이 준비된 식판에 밥을 푸고 그 위로 카레를 얹

어 두유와 함께 배식 봉사자들에게 건넸다. 창조클럽 총동창회 회원들은 창가 쪽 테이블부터 식판을 전달했다.

이를 받은 어르신들은 밥에 카레를 부어 먹거나, 밥 한 숟가락을 카레에 적셔 먹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식사를 즐겼다. 서동에 거주하는 이월순(79·여)씨는 “매일 이곳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은 봉사자들 영양인지 더 맛있고, 든든한 것 같다”고 웃었다.

원우 중 한 명이 식사를 마친 어르신에게 “어머니, 맛은 어떠셨어요?”라고 문자 “말해 뭐해. 맛있었지”라며 엄지를 세우기도 했다.

석성심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 부회장은 “단순히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운을 얻고 가는 것 같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더 알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장관 부회장은 “총동창회 슬로건인 ‘화합·봉사·비전·창조’처럼 이번 봉사를 통해 더 넓은 시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주성혁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 원우들이 16일 오전 남구 서동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봉사에 앞서 박중수 대표이사로부터 감사 인사를 듣고 있다. /김애리기자

전남보건환경영양, 진로체험교실 운영

전남보건환경영양연구원은 16일 ‘연구원의 최첨단 분석장비와 풍부한 인적 기반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로체험교실은 전남인재생성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일환으로, 고교생에게 전문기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 체험으로 진로·진학의 목표와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보건환경영양연구원은 지난 3월 참여 희망 학교를 접수,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강진고등학교,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선정해 8월까지 2개월간 연구원 기반시설을 활용한 현장·실습 중심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서원기자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사직처리 ‘보류’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했으나 답변자 거의 없어

의대 증원에 반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지역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개별 파악했지만, 답변이 거의 없어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16일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파악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사직서 제출 전

공의 231명 전원에게 전날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실제 사직 의사를 파악했지만, 대부분이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은 생계를 이유로 다른 병원에 취업해야 한다고 사직서 수리를 요청한 극소수 전공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조선대병원도 최근 사직서 제출 전공의 96명 전원에게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묻는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하는 전공의는 없었다.

조선대병원도 수련병원 협의회와 공

동 대응 방안이 따르기로 하고 사직 처리를 미뤘다.

각 병원은 전공의들의 실제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직 처리 보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총원 차질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다.

광주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병원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압박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꺼번에 전공의를 모두 사직시키겠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 병원 풀림 등 하반기 총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사직 처리 보류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해질 19:46
달돋이 16:07 달짐 01:12

인천	24/26	서울	24/26	대전	24/29	대구	23/25		
전주	26/31	광주	25/31	부산	24/28	제주	27/33		
목포	25/29	흑산도	23/27	충청	23/26	강릉	24/30	도도	23/25

광주	구름비	25/31
목포	구름맑음	25/29
여수	구름조금	24/27
나주	흐림	26/31
완도	구름조금	24/30
구례	구름비	24/31
강진	구름맑음	25/30
해남	구름맑음	25/30
장성	구름비	25/30
보성	흐림	23/28
순천	구름비	24/30
영광	흐림	25/30
진도	구름조금	25/29
흑산도	구름맑음	23/27
고흥	구름조금	24/30

생활정보지수
 너들이 30 빨래 30 세차 40 운동 60
 우산 챙기세요 실내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우비 필요해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1.0-2.0
남해 앞바다	0.5-1.0	0.5-1.0
동해 앞바다	0.5-1.5	1.0-2.0
서해 먼바다(북)	1.5-3.5	1.5-3.5
남해 먼바다(동)	0.5-1.5	1.0-2.0
동해 먼바다(서)	0.5-1.5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9:53	04:06
여수	05:10	11:15
녹동	05:53	00:40
목포	23:11	15:48
여수	18:38	--:--
녹동	19:26	12:18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7월 18일(목)	☁(25/30)	☁(24/27)	☁(26/30)	☁(25/31)	☀(27/33)
19일(금)	☁(25/30)	☁(24/29)	☁(26/32)	☁(25/32)	☀(27/33)
20일(토)	☁(26/31)	☁(24/28)	☁(26/31)	☁(25/33)	☀(28/33)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오늘 광주서 초청 강연

북구 희망아카데미...9월24일엔 장동선 뇌 과학자

물리학자 김상욱(사진) 교수가 광주에서 초청 강연을 한다. 광주 북구는 16일 ‘평생학습 교양 강좌 ‘희망아카데미’ 110번째 강사로 김상욱 경북대학교 교수를 초청, 17일 강연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희망아카데미는 당일 오후 2시40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김 교수는 ‘물리학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준 것들’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오는 9월24일 희망아카데미에서는 장동선 공군한 뇌 연구소 대표가 ‘꼬인



인생을 푸는 뇌과학자의 접근’을 주제로, 10월23일에는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느리게 나이드는 습관으로 풍요로운 100세 시대 만들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일정과 강사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희망아카데미 참여 등 관련 문의는 북구청 인권교육과로 하면 된다. /안재영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속캠페인

“좋은사람과 좋은상품이 넘치는 일터” 남광주시장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별교,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파란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 062)650-2099